

사모하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!

고현권 목사

한주간 휴가를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. '돌아왔다'는 표현때문에 먼 곳에 다녀온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, 사실은 집에 머물면서 밀린 잠을 보충하고 잘 쉬었습니다. 이 지역에 계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바다낚시를 가자고 하셨습니다. 모든 장비를 다 가진 본인이라 따라갔습니다. 집에서 한시간 반 가량 떨어진 솔로몬 아일랜드 피어에 갔습니다. 낮시간에는 별로 입질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바닷바람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서 개의치 않았습니다. 그래도 혹시 눈먼 고기가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했는데, 입질조차 하지 않더군요. 그래도 좋았습니다. 간만에 들이키는 바다 내음이 그렇게 상큼할 수 없었습니다.

금요일 저녁에는 지난 9월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박병군 집사님 댁 가정을 심방하였습니다. "목사님, 조금 거리가 있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!" 그런데 조금 거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. 전혀 막히지 않아도 교회에서 한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살고 계셨습니다. 그리고 보니 제가 화요일에 낚시하러 간 솔로몬 아일랜드 가기 직전에 있는 헌팅타운(Huntingtown)이라는 곳이었습니다. 부인인 박혜민 집사님은 간호사로 주말 교대근무를 하기에 주일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는 형편이었습니다. 거의 15년 가까이 집 주변의 미국교회에 다니다가 어떤 분의 소개로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고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먼거리에서 매 주일 나오시는 박집사님께 약간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그러나 집사님은 은혜를 받으니 멀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.

아마도 거리상으로 보면 박집사님보다 조금 더 먼거리에서 나오는 가정이 이석(구정희)안수 집사님일 것입니다. 거의 한시간 반 떨어진 컬페퍼(Culpepper)란 곳에서 출석합니다. 병원 근무를 제외하고는 한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로 달려옵니다. 이 분들도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. 은혜를 사모하면 거리는 문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. 이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기도합니다. 오고가는 길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말합니다. 비록 이 보다는 가까울지라도 20-30분 거리에서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. 아니, 거리에 상관없이 매 주일마다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!

성경공부 안내

사도신경 성경공부 (목)저녁 7:30분(중)
 목요 여성 성경공부 (목) 오전 10시
 일대일 제자 양육자반 개인별 지정 시간
 다니엘서 성경공부 (토) 오전7:30분
 대화로 풀어가는 신앙 (주일) 오후1시

예배 안내

주일 1부 예배 오전 9:00
 주일 2부 예배 오전 10:50
 어린이 예배 오전 10:50
 EM/Youth 예배 오전 10:50
 수요 예배 오후 7:00
 새벽기도회(화-토) 오전 6:00

주일 예배 기도	금주	내주
	권영제 장로	심동철 장로
헌화	교회	조영신/양경모
친교 담당	여전도회	교회(5조)
친교 기도	김성보 장로	김형욱 장로

구역 선교 기도

구역	일시	장소	구역	일시	장소
1구역(강정자)	11/20	본당 모자실	6구역(구윤자)	11/20	사랑방
2구역(고경화)	11/20	B07	7구역(신명숙)	11/20	중예배실
3구역(손창호)	11/20	친교실	8구역(정찬문)	11/20	B04
4구역(안선영)	11/12	김광현 집사 댁	9구역(최영옥)	11/20	당회실
5구역(심무임)	11/20	성가대 연습실	10구역(이영숙)	11/20	주일학교 B05

헌금 통계

십일조, 감사, 주일, 선교 헌금	지정 헌화	합계

11월 행사 및 모임

6일
20일
27일

위원장 월례회, Daylight Saving Time 해제
 추수감사주일, 구역모임
 연말당회 시작